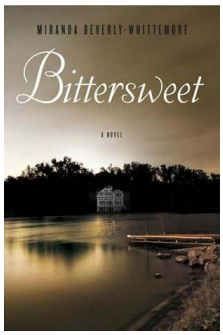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ITTERSWEET
가제 : 비터스위트
저자 : Miranda Beverly-Whittemorer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4년 5월 1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선정 및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판권 계약!

눈을 뗄 수 없고 오묘하다. 숨막히게 재미있다. —케이트 크리스틴슨 (펜포크너상 수상자, 'Great Man'과 'Blue Plate Special'의 저자)

'비터스위트'는 아웃사이더가 특권과 미심쩍은 도덕성으로 가득한 눈부신 세계를 꿰뚫으며, 독자를 감질나게 한다. —킴벌리 맥크라이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Reconstructing Amelia'의 저자)

상상도 못한 화려하고 풍족한 명문가의 생활과 그 이면의 추악함, '천국'의 의미를 되짚어보다

동부 해안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메이블은 입학 첫 날부터 쭉 기가 잔뜩 죽은 채로 지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밝게 웃는 동안, 메이블의 학교 생활은 그런 아이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이브의 영향도 컸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외모인 메이블과 정반대로 여자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으로 유명한 윈슬로우 가문의 딸인 이브는, 메이블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본체만체했다. 그렇게 한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브의 열여덟 번째 생일 파티를 계기로 바뀌었다. 이브가 에드가르 드가의 회화 작품을 학교에 기부하자 교내 박물관에서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메이블이 처음 보자마자 고상함과 우아함에 할 말을 잊은 이브의 엄마는 딸의 룸메이트인 메이블도 파티에 초대했다. 그 날 이후, 이브는 갑자기 메이블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엄청난 빈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고, 방학이 다가오자 이브는 메이블에게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여름을 보

내는 휴가지에 같이 가서 방학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한다. 메이블은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오리건 주 구석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집에서 우울한 방학을 보내야 할 생각에 끔찍할 정도였는데, 호화로운 부유층의 휴가를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버몬트 주 챔플레인 호숫가에 자리한 윈슬로우 가문의 휴가지는 메이블이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밤마다 열리는 칵테일 파티,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르른 잔디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도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수영장… 메이블은 꿈에서나 보던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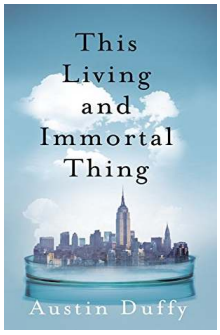
한 집안의 소름 끼치는 악행을 들여다본 목격자, 고요한 호숫가에서 벌어진 거짓말 같은 사건들

윈슬로우 집안이 소유한 호숫가 넓은 대지에는 먼 옛날 세워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부터 최고급빌라까지 여러 채의 작은 집들이 점점이 늘어서 있었다. 여름을 맞아 이브의 큰오빠 앤톨과 둘째 오빠 배닝, 셋째 오빠 골웨이, 개성보다 괴짜에 가까운 이브의 이모들까지 여러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다들 이 집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지낼 뿐 다 함께 모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메이블은 이브와 함께 '비터스위트'라는 이름이 붙은 아담한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메이블은 뜻밖의 행운으로만 느껴지던 이곳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왜 집집마다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까? 이브의 이모가 느닷없이 메이블에게 한 말,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거라."는 대체 무슨 뜻일까? 이브의 사촌이었다는 잭슨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다는데, 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브는 별장 관리인인 존과의 사랑을 왜 무조건 숨기려고 할까? 윈슬로우 집안의 내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된 메이블은 결국 소름 끼치는 비밀을 발견한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폭력, 지저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이 집안 사람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이면, 가진 걸 절대로 잃지 않으려는 탐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브의 셋째 오빠가 메이블을 처음 본 날부터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않자 어쩌면 이 화려한 가족의 일원이 될 지도 모른다는 꿈을 남몰래 꾸기 시작한 메이블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른다. 이 사악한 비밀을 모두 폭로하고 평생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천국' 같은 생활에서 내쫓길 것인지, 아니면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자기 자신도 그런 생활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같은 부류가 될 것인지, 마음을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메이블 자신이 감춘 과거의 비밀, 극복하지 못한 채 짓눌러 놓았던 트라우마와 대면해야 한다.

<저자 소개>

미란다 비벌리 휘트모어(Miranda Beverly-Whittemore)는 『The Effects of Light』 등 세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2007년 발표한 『Set Me Free』로 '재닛 하이딩어 카프카 상(Janet Heidinger Kafka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THIS LIVING AND IMMORTAL THING
가제 : 살아서 죽지 않는 존재
저자 : Austin Duffy
출판사: Granta
발행일: 2016년 1월 2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현대



우리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장대하며 강렬한 소설이다. 충격적이면서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심오하다. ―윌리엄 보이드

절대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존재와 매일 싸우는 남자, 죽음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생각

암 세포만큼 묘한 존재가 있을까? 다른 세포들이 제발 죽으라고 애원하고 공격하는데도,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이 정신 나간 세포들은 그 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공격을 이겨낸다. 몸에 증식하기 시작한 암 세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암세포 자체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생존을 도와주는 자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수를 늘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 생명을 앗아가지만 스스로는 불멸성을 지닌 존재, 어쩌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오랜 열망이 응축되어 이 질긴 생명력을 지니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매일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는 남자가 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뉴욕의 한 병원 연구소에서 암 연구를 하는 남자다. 그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실험 쥐, 그리고 암세포다. 아일랜드에 두고 온 아내 이본느와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나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느끼는 생경함은 한없는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획기적인 암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실험실에 틀어 박혀 연구하는 시간에만 마음이 편했다. 정확한 숫자로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 미리 정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조건들은 불확실성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런 위안도 소용없이, 남자가 연구하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끝내 지속되는 문제인 것처럼 그의 삶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기만 했다. 그런 생각에 머릿속이 불안으로 가득 찰 때면, 남자는 '헨리에타'에게 더욱 집중했다. 1950년대에 헨리에타 렉스라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서 분리해낸 종양 세포의 이름을 본 따서 남자가 실험 쥐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하지만 헨리에타가 필연적으로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다. 새로 개발 중인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헨리에타에게 암세포를 일부러 심어놓았으니, 치료 효과가 나타나 암이 치유되면 헨리에타를 부검해야만 한다. 실험 쥐들이 살아가는 작은 세상, 인간이 통제하는 그 세상은 거대한 병원 건물 속에서 매일 암과 싸우며 생사와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다.

암이라는 질병에 담긴 복잡한 세상을 견뎌내야만 하는 인간에게 '인간다움'이 주는 무게와 의미

가망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 그래도 살려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나마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지쳐버린 남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대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삶을 스스로 택했다. 그런데 헨리에타를 비롯한 실험 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직후, 남자에게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진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과 만나 금세 묘한 분위기가 싹트더니, 그 동안 관계가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고향의 아내가 갑자기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다. 번역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마야는 남자에게 분명한 호감을 표시하고, 그런 그녀를 보면서 남자는 혼란스러워진다. 병원에서 연구 성과를 내놓으라는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야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끌림을 따르려니 가족들, 늘 '집'이라 생각해온 존재들이 남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실제 자신이 살아온 삶과 매우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다움'의 의미와 고독이 주는 무게, 질병의 의미를 코믹하면서도 진중하게 그려낸다. 주인공 남자의 시선과 남자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의 혼란스럽고 독특한 면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오열을 하다가도 눈 앞에 지나가는 미인에게 아주 잠시나마 눈길을 돌리는 어느 젊은 남자의 본능적인 반응이나 실험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마치 전쟁터에라도 가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 우울한 심정을 멀쩡한 구름의 형태나 색깔에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공감을 영리하게 끌어낸다. 몸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정신만은 살아서 암세포처럼 불멸하리라는 생각, 그렇게라도 생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독특한 소재로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오스틴 더피(Austin Duffy)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국립암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다. 2011년 단편소설 『Orca』로 아일랜드 공영방송(RTE)가 수여하는 '프란시스 맥마누스 상(Francis MacManus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THE TROUBLE WITH LEXIE
가제 : 렉시의 문제
저자 : Jessica Anya Blau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16년 6월 2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여성

나이가 몇 살이든 사고를 칠 수 밖에 없는 철부지 어른, 그녀의 모험과 사랑, 열정의 험난한 여정

아이비리그 대학에 자녀를 무사히 입학시키려는 돈 많은 부모들이 너도나도 지원서를 내는 룩스턴 아카데미는 소위 명문 사립 고등학교로 소문이 자자하다. 렉시 제임스는 이 대단한 학교에서 3년 째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맡고 있다. 얼핏 보면 학생으로 보일 만큼 마른 체형에 조금은 아이 같은 외모지만 벌써 서른 셋이 된 렉시는 굴곡 많은 어린 시절을 지나 혼자 힘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지금의 밝은 모습만 보면 짐작하기도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엄마와 자신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후 렉시는 평생 파이 가게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온 엄마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엄마가 데려온 남자친구 때문에 도저히 혼자 지낼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길로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혼자 힘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생활비도 식당에서 일해 혼자 벌어서 해결하면서도 장학생으로 대학원까지 들어갔다. 늘 쪼들리는 형편에 하루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지만, 큰 빚 한 번 지지 않고 박사 과정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 렉시는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온 몸을 덮쳤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하나도 없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죽을 것처럼 겁이 났다. 책상에 앉으려고 하면 울컥 구토가 쏟아져 나오거나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공포감까지 밀려 왔다. 결국 교내 상담센터를 찾아간 렉시는 공황발작이라는 진단과 함께 진정제를 처방 받았다.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받고 행동치료도 시작됐다. 땅콩버터며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 B,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고 수면 상태도 관리를 받았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증상은 여전했지만 끈질긴 치료 의지 덕분인지 공부를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언제 다시 발작이 찾아올지 몰라 진정제를 늘 가방에 넣고 다녔지만 3년째 급작스러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룩스턴 아카데미의 '학부모 초청 주간' 마지막 날, 렉시가 몇 년 동안 잊고 지낸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고 말았다. 렉시가 가장 아끼는 학생인 에단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던 어린 시절, 어른이 되어서도 또 다시 도망치고 싶어 허우적대는 사람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교장 연설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은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있던 렉시는 어깨가 떡 벌어진 미남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바로 옆에 아내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년의 남자는 큰 강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페로몬을 온 몸으로 발산하며 렉시에게 뜨거운 눈길을 쉼 없이 보내고 있었다. 1년 반 넘게 만난 피터와의 결혼식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의 끈질긴 시선에 조금씩 흔들리는 자신이 렉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그가 다름아닌 에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렉시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운동장까지 따라 나오더니 렉시 바로 앞을 가로막고 인사를 건넸다. 다짜고짜 결혼은 했냐고 묻더니, 자신은 아들 몰래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에단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속셈이 불 보듯 뻔했지만 렉시는 못 이기는 척 약속을 잡고 말았다. 그리고 서둘러 교무실로 들어왔지만, 그 때부터 렉시는 발작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체 왜 그런 약속을 하고 말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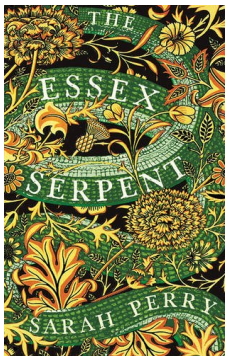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늘 남들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렉시는 갖은 고생을 다 견디고 겨우 꿈에 가까워졌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안정감은커녕 불안감만 커졌다.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 맞나?' 지금껏 살아온 모든 시간을 뒤흔드는 회의감이 떨쳐지지 않고, 렉시는 마침 눈 앞에 나타난 매력적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다. 온 힘을 다해 쌓아온 인생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렉시는 점점 더 큰 문제들과 엉키고 만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야 할 꼬이고 엉킨 삶은 이어지고 계속되는 선택과 갈등 앞에 무엇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시카 안야 블라우(Jessica Anya Blau)는 베스트셀러 『The Summer of Naked Swim Parties』와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소설 『Drinking Closer to Home』을 쓴 작가이다. 이 두 소설과 『THE WONDER BREAD SUMMER』은 모두 영화 판권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목 : THE ESSEX SERPENT
가제 : 에섹스 뱀
저자 : Sarah Perry
출판사: Serpent's Tail
발행일: 2016년 6월 1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판타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전설 속의 뱀, 1890년대 잉글랜드 고요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놓다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1890년대, 코라는 런던의 한 저택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덤덤하게 준비했다. 어느 날 아침식사를 하다가 "목에 왠 덩어리가 있는지, 토스트 삼키기가 어려워."라는 말로 처음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린 남편 마이클은 그로부터 6개월 뒤, 예정된 죽음을 맞이했다. 부부가 사는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주 기차를 타고 찾아온 주치의가 그 덩어리는 암 세포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은 단번에 거절했다. 이 땅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칼로 몸을 일부러 베어내서 생긴 상처 따위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죽고 싶다는 고집을 끝내 굽히지 않고 외과 수술은 일체 거부한 채 집에서 병마와 싸웠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점점 쇠약해지던 마이클은 그대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의사에게 주사바늘 놓는 법까지 배워가며 그를 간호해온 코라에게는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고통 그 자체였다.

코라가 마이클과 처음 만난 건 열일곱 살 때였다. 엄마가 아주 어릴 때 떠난 뒤부터 재산은 풍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은 받지 못하던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다.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다니던 아버지는 어느 날 마이클과 함께 나타났다. 아직 맨발로 돌아다니는 철부지 소녀였던 코라는 덥석 자신의 손을 붙잡고 손톱을 왜 이렇게 물어 뜯었냐고 나무라는 그 남자에게 왠지 모를 호기심이 들었다. 그 날 이후, 마이클은 수시로 코라를 만나러 왔다. 책을 건네기도 하고, 짓궂게 놀리고 장난을 치며 코라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었지만 코라는 항상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다. 지저분한 자신의 옷차림과 제대로 빗을 줄 몰라 늘 헝클어진 머리가 부끄러울 뿐이었다. 몇 년이 지나 코라가 열아홉 살이 된 어느 날, 마이클은 깨진 차주전자를 금을 녹여 고칠 줄 아는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이 그런 수선공이 되어 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더니 금반지를 건넸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프란시스가 열한 살이 된 해, 마이클은 치료를 거부하고는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눈물도 흐르지 않는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며 장례식을 준비하던 코라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남긴 재산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미망인의 모습과 어릴 때의 본모습, 즉 자연과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숨길 수 없는 학자의 모습이 자신의 작은 몸 속에 모두 들어 있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용기 앞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과 우정

남편이 가 버린 지금, 코라는 행복하거나 완전히 후련하지도 않지만 분명 마음 속 어딘가가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다. 물론 슬픔도 느꼈지만, 남편이 도자기를 빚듯 만들어온 자신의 모습과 진짜 자기 자신 사이에서 스스로를 혐오해야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거리낌없이, 타고난 본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다.
한편, 런던 북동부 에섹스 카운티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먼 옛날 습지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일명 '에섹스 뱀'이 다시 출몰했다는 것이다. 술에 취해 호숫가로 내려갔다가 그 거대하고 이상한 존재를 직접 봤다는 목격자도 나타나고, 실체가 있는지 그저 소문만 무성한 상상 속 괴물일 뿐인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다. 아마추어 자연학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코라에게 이보다 놀라운 소식은 없었다. 에섹스 뱀을 둘러싼 소문과 관련 기록들을 모조리 찾아본 코라는 이 뱀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생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뱀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람이 코라의 앞을 가로막는다. 바로 교구 목사인 윌이었다. 자신이 돌보는 교구 신도들을 건강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윌은 코라의 탐구 열정을 신앙심이 부족한 증거이자 신에 대한 믿음이 비뚤어진 결과라고 판단한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갈수록 극심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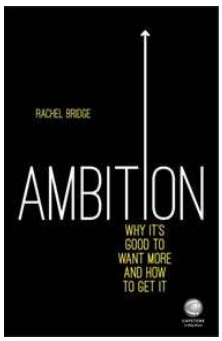
사랑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으며 그 무궁무진한 형태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소설로, 무언가를 향한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 우정이 어우러진 이야기가 잉글랜드의 어느 고요한 마을을 무대로 펼쳐진다.

<저자 소개>

새라 페리(Sarah Perry)는 런던대학교 로열 홀로웨이 칼리지에서 문예창작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글래드스톤 도서관의 상주 작가와 유네스코 '세계 문학작가 도시' 프로그램 소속 작가로 활동해 왔다. 데뷔 소설 『AFTER ME COMES THE FLOOD』로 '가디언 데뷔소설 상(Guardian First Book Award)' 후보에 오르고 2014년 '이스트 앵글리언 올해의 도서 상(East Anglian Book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AMBITION
가제 : 야망
저자 : Rachel Bridge
출판사: Capstone
발행일: 2016년 2월 26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은 마음, '야망'의 진짜 의미와 더 큰 성공을 위한 활용법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는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명절이나 가족 행사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일 때면 늘 이런 질문이 등장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물어보거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줄고, 어른이 되면 아예 한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종의 '야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은 생애 어느 단계에 있든, 이미 성취한 일이 얼마나 되든 삶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현 시점보다 더 나은 일,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끔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야망이다. 야망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변화도 모두 불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장래희망을 궁금해하지 않거나 묻지 않는 건 대답하기 곤란할까 봐 배려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야망에 대한 인식에 분명 왜곡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타는' 야망, '노골적인' 야망, '무자비한' 야망처럼 흔히 함께 쓰이는 수식어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야망은 가차 없이 탐욕을 드러내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루거나 가지고 말겠다는 들끓는 욕심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어지는 대로, 그저 인생이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다르는 목적지와 성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야망은 성공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됐다.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야망에게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야망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절하는 방법과 함께 목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무엇보다 야망을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지금까지 대체로 여러 가지를 이루었지만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아쉬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남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픈 욕구가 마음 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야망이 선사하는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어려운 공부를 해내고, 명망 있는 직업을 갖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삶에 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야망의 수준이 평균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다양한 조사와 연구로 입증되었다. 저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심리학 모형을 활용하여 더 성공하고픈 마음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본 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비즈니스, 음악,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 야망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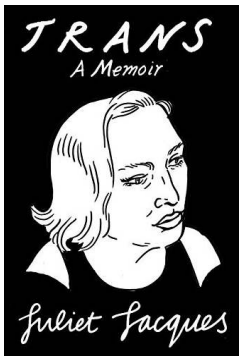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이루고 싶은 것부터 확실히 파악하라
2. 야망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라
3. 계획을 세워라
4. 의욕을 불태워라
5. 이미 가진 기술을 활용하라
6. 필요한 것을 획득하라
7.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8. 에너지 레벨에 주시하라
9. 직접 조사하라
10. 뛰어들어서 해결하라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레이첼 브리지(Rachel Bridge)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선데이 타임스」에서 편집 일을 맡다가 「선데이 텔레그라프」의 칼럼리스트로 일했다. 현재는 강연자, 저널리스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매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3-4회의 강연을 열고 있으며, 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다.

제목 : TRANS
가제 : 전환
저자 : Juliet Jacques
출판사: Verso Books
발행일: 2015년 9월 2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용감하며 감동적이다. '전환'은 젠더, 힘, 자유, 욕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한다.
—올리비아 랭 ('The Trip to Echo Spring'의 저자)

혼란스러웠던 30년의 시간을 지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일치하는 존재가 되기까지의 생생한 기록

2012년 6월, 저자는 서른 살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0년부터, 수술을 받은 2012년까지 저자가「가디언」웹사이트에 진솔하게 털어놓은 성전환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이 회고록은, 저자가 보낸 성장기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여정과 성 정치학의 세계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야 어린 시절부터 머리로 인식하는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몸이 하나로 일치하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는 저자는,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과 자신이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고,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일들을 전전하다가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브라이튼에 살면서 출판계에 첫 발을 디뎠지만, 런던 출신자들이 지배하는 편협한 환경 속에 치일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주류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새삼 깨닫고 저자는 큰 충격에 빠진다.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자유주의나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매체들까지 성전환자와 관련된 화제에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며 성전환자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으려는 현실에 저자는 큰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그 때의 감정들은 곧 끓어오르는 열정이 되었고, 저자는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리라 결심했다. 평생을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두려움에 짓눌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자신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진정한 '전환'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위해 입원하기로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날, 저자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털어 놓는다. 수술 절차의 하나로 6주 전부터 여성호르몬 투여를 중단한 탓이라거나, 한 번도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는 불안함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진한 서글픔과 회한이 몰려와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30년의 세월을 살면서 항상 남들과 섞이지 못하는 존재로 느꼈던 일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냥 그런 불편함을 안은 채로 살아온 20년, 그 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구했던 10년, 진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지난 3년, 그리고 「가디언」에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 몸과 마음의 전환 노력들을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일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느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와 심신을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인생을 바꿀 수술을 앞두고 4일 동안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감정에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저자는 소중한 사람들이 북돋아준 용기와 힘을 되새기면서, 마침내 수술을 무사히 마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이자 성전환자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한 분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회고록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되짚어보게 만드는 깊은 힘을 발산한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통렬한 자기 비하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솔직한 저자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여러 순간들을 글로 표현하는 일의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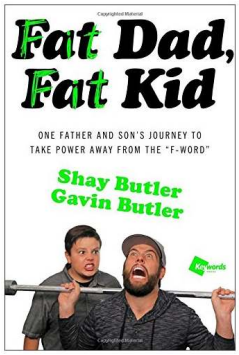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줄리엣 자크(Juliet Jacques)는 프리랜서 작가로, 「가디언」에 '트랜스젠더의 여정(Transgender Journey)'라는 제목으로 완전한 성 전환을 이루기까지 과정을 연재하며 화제를 얻고 이 칼럼으로 2011년 '오웰 상(Orwell Prize)' 후보에 올랐다. 현재 런던에 살면서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FAT DAD, FAT KID
가제 : 뚱보 아빠 뚱보 아이
저자 : Shay Butler and Gavin Butler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5년 12월 29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건강/회고록



더 이상 뚱보로 살지 말자! 함께 결심하고 변화를 만들어간 유튜브 스타와 아들의 생생한 기록

부모가 뚱뚱하면 아이는 무조건 뚱뚱해질까? 거리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즐비하고 탄산음료며 온갖 가공식품이 슈퍼마켓 진열장은 물론 집안 곳곳을 점령한 시대에, 디지털 사업가이자 비디오 블로거로 유명한 저자는 열한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섰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낳은 아들 셋, 딸 둘까지 총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한 시도 조용한 순간이 없는 나날들을 유튜브로 공유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된 저자는 미국의 여느 평범한 아빠들과 비슷하게 살아 왔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아홉 시부터 다섯 시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점심 시간에는 대부분 더블 베이컨 치즈 버거로 허기를 달래고, 목이 마르면 탄산음료를 마시고, 퇴근하면 콘칩과 살사, 거대한 사탕 봉지를 안고 소파에 드러누워 동 틀 때까지 영화 보는 낙으로 살았다. 운동이라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전부였던 당시, 저자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몸무게가 127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위태로운 지점에 이르고 말았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공룡처럼 공격하고 장난치고 레슬링 한 판만 벌이면 짜증이 싹 달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몸이 비대해지자 아이들과 놀고 싶어도 숨이 차서 제대로 놀 수도 없었다. 이러다 서른다섯 살도 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뜰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자는 식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운동을 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익히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삼고, 마라톤 대회에도 네 차례나 출전하고, 활동적으로 살고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이려고 애쓴 이 피나는 다이어트의 여정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무사히 서른다섯이 된 시점에, 저자는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폭 바꾸어버린 생활과 확 줄어든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음이 해이해져 다시 예전 습관대로 아무거나 먹어대는 일도 빈번해졌다. 살이 다시 찌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나쁜 식습관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녀석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었다. 저자는 자신을 꼭 빼 닮은 장남 개빈과 30일 동안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다시 한 번 변화에 도전했다.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발견했던 그 시간들, 예상치도 못한 재미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과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와 아들 개빈이 세운 계획은 30일 동안 '깨끗한 먹거리'만 먹고 하루에 최소 30분 간 운동

을 하자는 것이었다. 쿠키, 사탕,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은 일체 먹지 않고 최대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선한 음식만 먹고, 수영이든 달리기든 운동기구를 활용하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체중계에 나타나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두 부자는 절실히 깨달았다고 전한다. 결심과 목표를 종이에 크게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본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와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유익한 노력도 지속할 수 없다. 아이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직업적인 성공 등 반드시 건강해져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가 절실하게 느껴야 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다이어트나 건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어른과 아이가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좋은 예로 삼아 누구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훨씬 더 가뿐하고 긍정정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진심이 유머러스하고 솔직한 글 속에서 그대로 느껴진다. 개빈이 직접 쓴 일기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생생함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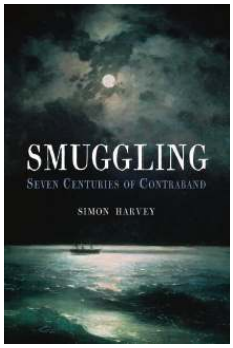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뚱보 아빠' 밑에서는 무조건 '뚱보 아이'가 나올까?
1일차: 금기어
2일차: 개빈, 설탕 포기를 선언하다
3일차: 악바리라 불러다오
4일차: 내 사랑 멜론! 하지만 멜론보다 사랑스러운 내 아내
5일차: 망할 당근 좀 먹으라고!
6일차: 풍선껌 중독인가 백만장자인가?
7일차: 액체로 된 설탕은 이제 그만
8일차: 스파이더맨처럼
9일차: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10일차: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체중감량 전문가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셰이 버틀러(Shay Butler)는 디지털 기업가이자 비디어 블로거로 「포브스」지로부터 '가장 성공한 유튜브 비디오 기업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구독자가 수백 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육아 채널 'Shaytards'는 2009년 매셔블(Mashable)로부터 최고의 유튜브 채널로 선정됐다. 개빈 버틀러(Gavin Butler)는 그의 다섯 아이 중 첫째다.

제목 : SMUGGLING
가제 : 밀수의 역사
저자 : Simon Harvey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역사



전 세계 힘과 권력의 분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밀수, 7세기에 걸친 역사 속 다양한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밀수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으로 접한 갖가지 밀수 사건들부터 떠올릴 것이다. 오래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각종 자료에서는 밀수를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로맨틱한 행위 또는 부당한 사회적 상황을 뒤집는 저항심의 표출로 묘사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밀수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저자는 바로 이 같은 인식에 반기를 들고 밀수는 인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책에서 꼼꼼히 짚어본다.

뉴스를 읽다 보면 헤로인이나 코카인, 총기, 심지어 사람까지도 매매하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물건과 대상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정치과학적 연구도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경 지역의 문화와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이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밀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경제의 한 부분이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가거나 해외 어딘가에서 온 상품이 엉성한 허가만 받은 채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밀수 행위는 일부 범죄자들이나 저지르는 극소수의 일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세계화와 지정학적 현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점차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총 7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밀수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최초의 시도에서 나온 결과이자, 각양각색의 밀수 수법, 광범위한 밀수품을 총망라하여 학계의 연구 결과와 생생한 사례를 집약한 종합 역사서다.

저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굵직한 변화에 영향을 준 밀수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대항해 시대에는 실크, 향신료, 은이 주된 밀수품이었다면 대영제국 시대에는 금화, 아편, 차, 고무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졌고, 현대로 접어들면서 마약과 아프리카에서 캐낸 다이아몬드가 가장 인기 있는 밀수 품목이 되었다. 비율 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런 밀수품 외에도 총, 예술품을 비롯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과 가장 위험한 밀수품이라 할 수 있는 '정보', 특히 군사 기밀까지 남몰래 거래됐다. 이 책에 등장하는 700년의 밀수 역사 속에는 네덜란드, 영

국 동인도회사와 같은 정부기관이 개입한 '합법적인' 밀거래와 스페인 제국, 나폴레옹, 나치, 소비에트, CIA 등 각국 대표 기관과 밀수의 연관성, 은밀한 활용과 대처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진 밀수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물건들이 밀수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에 미친 영향과 다양한 밀수꾼들이 한데 모이는 지하 세계의 거대한 지도도 함께 제시된다.

전 세계의 권력과 힘의 중심이 바뀌도록 만든 밀수. 늘 정치와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지정학적 요소와 상호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진 밀수의 폭넓은 역사를 국제 관계, 갈등, 세계화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찰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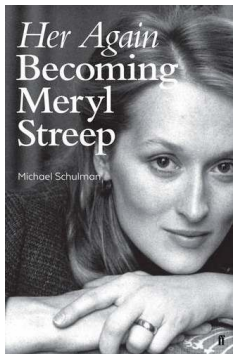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로맨스, 반란, 권력
1부. 밀수와 탐험
1. 거대한 야망: 탐험시대의 밀수
2. 독점!: 향신료의 섬, 남중국해
3. 밀수품의 바다: 지중해와 '은의 강'
(이하 생략)
2부. 밀수와 제국
7. 해적이 된 애국자들: 변덕스럽고 실용적인 밀수꾼들
8. 일상적인 사업: 나폴레옹이 만든 영국 밀수꾼들
9. 밀수의 세계: 라플라타 강부터 홍해까지
(이하 생략)
3부. 밀수와 세계
13. 밀수 문화: 훔친 보물
14. BONZENFLUCHT: 제 3제국과 아르헨티나
15. 블랙마켓: 뭐든 싸게 드립니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사이먼 하비(Simon Harvey)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대학교에서 순수예술 아카데미 소속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HER AGAIN
가제: 역시 그녀
저자: Michael Schulman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4월 28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전기



오스카 트로피를 세 번이나 거머쥔 이 시대 최고의 배우, 메릴 스트립의 생애와 빛나는 재능

2012년 겨울, 매해 풍성한 뉴스와 볼거리를 낳으며 영화배우는 물론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메릴 스트립은 영화 <철의 여인>으로 막강한 경쟁자들과 함께 여우주연상 후보로 호명되더니 결국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녀의 나이 예순 셋, 벌써 세 번째 오스카 트로피였다. 아카데미 상에 무려 17번이나 후보로 올라서 세 번째로 수상한 것은 그녀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장식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골든 글로브 상 8회 수상, 바프타(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상) 2회 수상, 에미 상 2회 수상, 미국 배우 조합 상 2회 수상, 피플스 초이스 상 8회 수상에 빛나는 메릴 스트립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배우이자 문화의 아이콘이다. 「뉴요커」, 「뉴욕타임스」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을 쓰고 편집해온 저자는 처음으로 완성한 이 저서에서, 메릴 스트립이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지나 왔는지 따라가본다. 아주 특별한 배우 한 사람을 향한 강렬한 호기심과 애정이 가득 담긴 이 전기에서 우리는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함께 짧고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사랑, 페미니즘, 결혼, 사랑, 희생이라는 묵직한 주제와 맞서 싸워야 했던 젊은 메릴 스트립의 개인적인 삶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영화 <크래머 대 크래머>로 할리우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메릴 스트립의 연기 인생은 뉴저지 교외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열두 살 때 학교 공연에서 노래를 맡은 메릴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았다. 청중이 진심으로 보내는 박수갈채, 저자는 메릴이 그 환호와 박수의 맛을 처음 느낀 것이 바로 이 때였으리라 추정한다. 부모님은 곧바로 메릴에게 노래 수업을 따로 받도록 했지만, 어느 날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비버리 실스의 목소리를 들은 메릴은 자신의 노래 실력은 결코 대단한 수준이 아님을 깨닫는다. 대신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뮤지컬을 시작하고 이어 바사르 칼리지에서 본격적인 연극 공부를 시작한다. 그녀의 재능에 깜짝 놀란 한 교수는 다양한 연극에 메릴을 캐스팅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잘 맞는 역할이 포함된 연극을 일부러 고르기까지 했다. 그렇게 재능을 다듬어가던 메릴은 1972년, 경쟁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예일 대학교 연극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오디션을 치르고 당당히 입학증을 따 낸다. 시고니 위버, 크리스토퍼 듀랑, 웬디 워서스타인과 같은 위대한 배우들과 함께 일명 '예일 트라우마 스쿨'로 불릴 정도로 혹독했던 연극 수업을 받으면서, 메릴 스트립은 조금씩 누구도

뛰어넘지 못할 배우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미 이 시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메릴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배우라는 이야기가 쫙 퍼져 있었다고 전한다.

영화와 연극에서 메릴 스트립과 함께 일한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지난 수년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소신과 생각들을 종합한 이 책은 그녀의 초기 생애부터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연극과 영화에서 배우로서 걸어온 여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특별한 영향을 주었던 감독들, 연극 무대에만 서던 메릴 스트립이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와 더불어 성격파 배우 존 카잘과의 짧고도 강렬했던 사랑, 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 줄곧 그녀의 곁을 지켜 온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생활, 페미니스트로 입지를 굳히게 된 배경 등 개인적인 삶까지 들여다보며 이 특별하고 재능 넘치는 배우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본다.

<목차>

머리말
메리
줄리
콘스탄스
이사벨라
프레도
린다
조안나
조연들

<저자 소개>

마이클 슐먼(Michael Schulman)은 2003년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요커」에 다양한 인물과 발명품 등에 관한 글을 50편 넘게 기고했다. 이후 「뉴욕타임스」에도 2년 반에 걸쳐 커버스토리 등 11편 가량의 글을 실었다.

제목 : SOCIAL MEDIA FOR WRITERS
가제 : 작가들이 알아야 할 SNS 세상
저자 : Tee Morris, Pip Ballantine
출판사: Writer's Digest Books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분량 : 278 페이지
장르 : 실용

책 홍보도 더 이상 남일이 아니다, 작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SNS 활용법과 필수 마케팅 전략

"SNS 활동은 하시나요?" 출판 에이전트나 출판사 편집자가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일이 흔한 시대가 되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소셜 미디어는 작가들의 집중력에 오히려 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졌고 글 잘 쓴다고 이름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SNS는 한바탕 불고 지나갈 유행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10년 새 그와 같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누구나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성 덕분에,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이 없다. 그런데 유독 작가들과 이 소셜 미디어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작가들은 자신이 쓴 글을 홍보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싫어한다. 공들여 쓴 작품에 대해 무슨 약장수처럼 화려한 수식어를 덧붙여가며 떠들어대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심하다. 그러나 현실은? 책을 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국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 작가가 직접 메가폰을 들고 나서리라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른 채 허공에 대고 고함만 고래고래 지르고 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후자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두 저자는 바로 이런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작가들에게 꼭 필요한 소셜 미디어 활용법을 정리했다. SNS의 저력을 충분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지만 기초적인 사용법조차 모르는 작가들에게는 첫 단계부터 핵심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주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정도는 일상 생활이 된 작가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활용 방식을 뛰어 넘는 참신한 전략을 제시한다.

워드프레스, 텀블러, 구글 플러스, 유튜브, 핀터레스트 등 익히 들어본 소셜 네트워크의 종류만 나열해도 초보자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이 책은 작가들이 다양한 SNS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낯선 세계로만 느끼지 않고 자신만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직접 형성하여 온라인 공간에서도 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심한 SNS 사용설명서로, 우수한 활용 사례와 온라인 에티켓까지 한꺼번에 배울 수 있다. 특히 SNS에 작업 일지를 기록하면서 창작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협업하는 방법, 자신만의 온라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 SNS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 컨텐츠를 올리고 이를 한 곳에 통합하여 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키우는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자신의 작품을 기다리

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 등 작가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이제 소셜 미디어는 작가가 독자들과 인터넷 공간에서 직접 소통하고 직업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작품의 일면을 독자가 살짝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책을 마케팅하는 실력 또한 작가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만큼이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되었다. 책 홍보나 마케팅은 남일로만 생각해온 작가들이 그 해묵은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경로에 제대로 발을 들이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1장. 워드프레스
2장. 텀블러
3장. 팟캐스트
4장. 페이스북
5장. 트위터
6장. 구글 플러스
7장. 유튜브
8장. 핀터레스트
9장. 인스타그램
10장. 관습을 깬 작가들의 SNS 사례
11장. 검색엔진 최적화와 사악한 마법
12장. 컨텐츠 마케팅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티 모리스(Tee Morris)는 2005년 팟케스트 MOREVI를 통해 첫 번째 소설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SNS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Podcasting for Dummies』, 『Expert Podcasting Practices for Dummies』등의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한편, 아내인 핍 발렌타인과 함께 『The Ministry of Peculiar Occurrences』를 발표했다.

핍 발렌타인(Philippa Ballantine)은 1997년부터 활동해온 작가로, 뉴질랜드 최초의 팟캐스트 소설가가 되어 『Weaver's Web』, 『Chasing the Bard』, 『Weather Child』, 『Digital Magic』 등을 발표했다.